

# 봄바람 타고 레저용 차 “잘 나갑니다~”

## 기아차 ‘올 뉴 카렌스’ 판매 증가율 593%

### 쌍용차, 4월 5115대 팔려 7년만에 최대 실적

국내 자동차 시장의 침체 속에 봄·여름을 맞아 레저용 차량(RV)이 강세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서 생산되는 신차 ‘올 뉴 카렌스’는 전년 동기보다 무려 593%의 판매증가율을 보이며 인기몰이를 했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차종은 6만7219대가 팔려 지난해 4월(7만6214대)보다 11.8%

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RV 차종의 판매량은 2만918대에서 3만667대로 46.6% 늘었다. RV 중에서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은 2만3952대로 판매량이 51.7%나 늘었고 미니밴도 6584대로 48% 증가했다. 1~4월 누적판매량을 봐도 RV는 올해 들어 10만4592대가 팔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5.5% 증가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3월 미니밴 차급에서 ‘2013 카니발R’과 ‘올 뉴 카렌스’를 내놓으며 국내 RV 시장을 견인했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신개념 RV ‘올 뉴 카렌스’는 1512대나 팔려 전년의 구형 모델 대비 593%나 더 판매됐다. 같은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RV 스포터지R도 3616대가 판매됐다. 광주공장은 지난 4월 생산라인별로 4~6회 주말특근을 실시해 전체 판매실적을 끌어올렸다. RV 분야에서 강점이 있던 쌍용차가 실적 호조를 보인 것도 ‘RV 대세’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지난해 4월보다 27.7% 늘어난 5115대를 판매해 월간 기준으로 2006년 12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RV 신차들이 쏟아져 나온 데다 주말을 이용한 레저활동 인구와 캠핑족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목적 RV 차량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UV 역시 올해 들어 현대차의 맥스쿠르즈, 싼타페 투익스(TUUX)팩, 기아차의 ‘2013 모하비’, 한국지엠의 쉐보레 트랙스 등이 쏟아져 나왔다. 강세를 보인 RV와 달리 승용차 차종의 실적은 죽을 췄다.



‘올 뉴 카렌스’

아반떼 등 준중형과 제네시스 등 준대형만 판매량이 각각 0.6%, 4.1% 늘었을 뿐 경차 판매대수가 26.2% 줄어든 것을 비롯해 소형 9.2%, 중형 17.9%의 판매감소율을 기록했다. 경차 판매 급감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민층 수요자들의 극심한 소비 위축세가 반영된 데다 지난해 초 발매된 새로운 경차들의

신차효과가 가라앉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 레저 활동에 대비한 RV 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여기에 신차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는 인기 차종은 계약 후 3~4개월을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연동통신기자 exian@연합뉴스

# 유통시장 ‘지각변동’

## 대형점포 ‘주춤’...생활밀착형 ‘증가’

유통시장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점포의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 생활밀착형 점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해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유통시장, 대형점 줄고 생활밀착형 늘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형마트의 성장률은 1.4%로 물가 상승폭에도 못 미쳤다”며 백화점도 최근 몇년간 두자릿수 성장세에서 작년에는 4.9%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업계에 따르

면 백화점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신규 출점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에서 소량 판매하는 생활밀착형 유통의 경우, 편의점은 작년 매출이 19.8% 증가했고 점포수도 약 3280개 늘었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230여개 증가했다. 생활밀착형 유통의 새로운 유형인 드럭스토어는 아직 시장 규모는 500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신규 브랜드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유통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아울렛과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를 꼽았다. 지난해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은 41.3% 성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 등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 등을 유통시장의 변화 이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어린이날 그림대회’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시립 민속박물관 앞 비엔날레 광장에서 광주전남 어린이와 가족 등 약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어린이날 그림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 100만원 1년 예금해봤자 이자 9900원

## 수시입출금 금리 0%대로...금융당국 실태점검

1억5000만개 넘게 개설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수시입출식 예금)’의 금리가 0%대로 주저앉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아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0.99%로 집계됐다. 금리가 1% 밑으로 내려간 건 2년2개월 만이다. 수시입출식 계좌에 100만원을 1년간 두면 9900원만 이자로

붙는 셈이다. 9900원의 15.4%는 또 세금으로 뺀다.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는 1억5000만개를 넘는다. 은행들은 이들 계좌의 잔액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잔액이 적을수록 ‘제로금리’로 수렴한다. 개인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예금)의 경우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은행은 0%, 기업은행은 0.1%의 이자를 준다. 잔액이 5000만~1억원이면 국민·농협·기업은행 1.20%, 외환은행 1.

15%, 신한은행 1.05%, 우리은행 1.00%, 하나은행 0.95%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붙는다. 하나(1.75%), 기업(1.60%), 국민(1.50%), 신한(1.40%), 외환(1.30%) 등 일부 은행은 잔액이 1억원을 넘는 자산가의 수시입출식 계좌에 금리를 더 후하게 쳐준다. 은행 수시입출식 계좌 잔액은 264조원으로 계좌당 약 162만원씩 예치돼 있다. 평균 잔액이 적은 것은 휴먼계좌(오랜기간 쓰이지 않은 계좌)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자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늘자 실태 조사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양파값 안정세

## 1kg 소매가 3490원...2주 연속 하락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양파 가격이 지난해 둘째주 이후 2주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4월 넷째주(22~26일) 양파 1kg의 평균 소매 가격은 3490원을 기록했다. 3515원을 기록한 4월 셋째주보다 25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달 둘째주보다는 106원 떨어진 가격이다. 양파 1kg당 월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0월 1694원에서 11월 1821원 2149원, 2월 2707원, 3월 2967원, 4월 3551원으로 급등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제주도 햇양파(조생종)가 본격

출하돼 양파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평균가격 및 과거 5년간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 이상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작년 4월 양파 1kg의 평균 소매 가격은 1357원, 과거 5년간 평균 소매 가격은 1654원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햇양파 출하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탓에 민생종 양파가 출하되는 이달 말에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2년간 양파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을 줄인데다 3·4월 이상저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양파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 광주농협 ‘도·농 상생 금요 직거래장터’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지난 3일 오이데이를 맞아 평동농협(조합장 남하룡)과 함께 무등산국립공원내 ‘도·농 상생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장터’에서 무료식사와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제공>

# 광주신세계, 73명 정규직 전환

광주신세계는 최근 백화점과 이마트 광주점에서 근무하는 도급사원을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기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야는 백화점 식품 판매직 11명, 식품 소분직 11명, 광주신세계 이마트 식품·비식품 판매직 51명 등 총 73명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법적 지원사항과 의료비, 직원 소풍 활동, 경조사 지원 및 휴가제도, 콘도 이용 등 복리후생을

보장받게 된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향후에도 임직원의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이들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의미로 지난 1일 오전 9시, 오후 3시에 백화점과 이마트 직원에 대해 각각 환영행사를 갖고 축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광주일보 창사 61주년을 축하합니다.

- 광양·구례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우윤근
- 광양시의회  
의장이 정문희 의원일동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희봉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상조
-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웅
-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효수
- 광양시항운노조  
위원장 이정원
-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  
직원 일동

- 광양시산림조합  
조합장 강대유
- 광양원예농협  
조합장 김영배
- 포스코페로니켈법인SNNC  
대표이사 김학동
- (주)유니테크  
대표이사 이광용
- (주)광희  
대표이사 하택호
- 광양사랑병원  
임직원일동
- 광양노인요양병원  
직원 일동
- 광양만권시설관리(주)  
대표 길용구
- (주)대광  
임직원 일동